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 우울과 전공만족도 간의 경로분석

박미현<sup>1</sup>, 박은영<sup>2\*</sup><sup>1</sup>충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 <sup>2</sup>백석문화대학교 초빙교수

## Path Analysis of Self-Esteem, Empathy, Depress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Mihyeon Park<sup>1</sup>, Eunyoung Park<sup>2\*</sup><sup>1</sup>Researche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sup>2</sup>Visting professor, Baekseok culture university, Chungcheongnamdo, Korea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공감과 우울의 주요 변인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가설모형을 구축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직·간접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C도에 소재한 2개의 대학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분석은 SPSS 26과 AMOS 23으로 하였다. 최종 모델에서 자아존중감( $\beta = .29, p = .001$ ), 공감( $\beta = .49, p = .001$ ), 우울( $\beta = -.21, p = .032$ )이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 $\beta = .12, p = .031$ )은 우울을 매개하여 전공만족도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공감, 자아존중감, 우울의 설명력은 36%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높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울을 낮춰 자아존중감을 높이면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존중감, 공감을 높이고 우울은 낮출 수 있는 인지행동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우울, 공감,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mpact of major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empathy, and depress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construct a hypothesis model, and identify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path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nursing students between 2 March and 30 March, 2023 from two universities in C-Do,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6.0 and AMOS 23.0. In the final model, self-esteem ( $\beta = .29, p = .001$ ), empathy ( $\beta = .49, p = .001$ ), and depression ( $\beta = -.21, p = .032$ ) had a direct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Additionally, self-esteem ( $\beta = .12, p = .031$ ) had an indirect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through depression. The explanatory power of empathy, self-esteem, and depression for major satisfaction was confirmed to be 36%. Increasing self-esteem and empathy will not only directly increase major satisfaction, but indirectly lowering depression and increasing self-esteem will also increase major satisfaction. Therefore, when developing a nursing education program that increases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gnitive behavioral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self-esteem and empathy and reduce depression.

**Key Words** : Depression, Empathy,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Park(ey7230@bscu.ac.kr)

Received September 23, 2023

Accepted December 20, 2023

Revised December 7, 2023

Published December 28,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과를 선택하는데 부모의 전공 선호도나 학교 규모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에 맞는 전공 선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의존적인 진로 선택 및 불안정한 적성 인식은 대학 전공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며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2]. 전공만족도는 개인의 성격, 관심사, 역량, 직업기대 등의 요인에 따라 현재 자신의 전공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다[3]. 특히 간호대학생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임상실무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하고 재학 중 성적이 취업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4]. 이러한 학과 특성에 따른 학업 부담은 전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긍정적인 전공만족도는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학과 적응 및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국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느낌, 감정 등이 심리 현상 속에서 수용되고 조직화 되는 의미를 지니며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개념이다 [7].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잘 인식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8].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년,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등에 영향을 받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타인의 건강을 이해하고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다[10]. 임상환경에서 공감 행동이 증가할수록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적 활동의 오류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11]. 간호대학생의 공감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를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간호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공감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공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환자 입장에서 사고하려고 노력하며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 간호사가 되어서도 직업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간호대학생은 엄격한 전문교육과정과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타 전공에 비해 우울도가 높았다 [14]. 또한, 1-2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은 4학년 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이었으며, 인체와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간호술기 습득으로 인한 학업 부담감으로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5].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으로 우울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아지고 학습의 몰입과 직업준비도에 영향을 미쳐 간호사가 된 후에도 숙련도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았다[16]. 그러므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의 직·간접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자아존중감, 공감,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공감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공감을 외생변수로, 우울을 내생변수인 매개변수로 하는 가설모형을 설정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학과 적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공감, 우울,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 간 차이를 분석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 3) 가설 설정에 따른 경로모형과 수집된 자료 간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종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이 우울을 매개로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효과를 파악하는 경로분석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C도 소재의 간호대학 2곳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경로분석에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2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17]. 또한, 추정해야 할 모수 수의 15~20배의 표본이 권장되므로[17], 최소 필요 표본 수 200명으로 10%의 탈락률을 적용하여 총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지 불충분한 20명을 제외하고 최종 대상자는 200명이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7]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Ha[1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자존감' 척도 5문항, '부정적 자존감' 척도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a[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2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0였다.

#### 2.3.2 공감

공감은 Davis[19]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를 Kang 등[20]이 번역한 한국어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2개 영역 4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2.3.3 우울

우울은 Radloff[21]가 개발하고 Jeon 등[22]이 변안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CES-D 척

도는 '신체적 저하' 8문항, '긍정적 정서' 4문항(역문항), '대인관계' 4문항, '우울 정서' 4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극히 드물게(1일 이하)' 0점 ~ '거의 대부분(5~7일)' 3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22]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2.3.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23]가 개발한 학과 만족 도구 중 전공만족도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 만족' 6문항, 전공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인식 '교과 만족' 3문항, 교수 학생 간의 '관계 만족'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Likert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7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3년 3월 2일 부터 3월 30일까지 C도에 소재한 2곳의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종교, 직전 학기 성적,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공감, 우울, 전공만족도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중도에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경우 개별적으로 인터넷 웹페이지에 온라인 설문 참여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으며 응답 후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6.0 ver과 AMOS 23.0 ver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검정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 방법으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 검증은 측정변수의 정규성과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상관계수, 왜도 및 첨도, 분산팽창인자 및 공차 한계도를 산출하였으며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로서  $\chi^2$  값과 GFI(Goodness-of-Fit-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적합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를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 우울, 전공만족도 정도와 차이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t=-2.06, p=.041$ ), 종교가 있는 경우( $t=4.24, p<.001$ ), 직전 학기의 성적이 4.0 이상인 경우( $F=23.28, p<.001$ ),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F=8.56, p<.001$ ). 공감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t=2.49, p=.014$ ), 직전 학기의 성적이 4.0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F=10.67, p<.001$ ). 우울은 종교가 없는 경우( $t=-2.10, p=.037$ ), 직전 학기의 성적이 3.0 미만인 경우( $F=16.77, p<.001$ ),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F=23.66, p<.001$ ). 전공만족도는 종교가 있는 경우( $t=4.44, p<.001$ ), 직전 학기의 성적이 4.0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F=39.90, p<.001$ ) (Table 1).

####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공감, 우울, 전공만족도 수준과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14\pm 0.47$ 점, 공감은 5점 만점에  $3.39\pm 0.42$ 점이었다. 우울은 3점 만점에  $.49\pm 0.35$ 점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9\pm 0.79$ 점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공감, 우울,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검증 결과, 자아존중감과 우울( $r=-.60, p<.001$ )은 음의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r=.45, p<.001$ )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감과 전공만족도( $r=.51, p<.001$ )는 양의 상관관계를, 우울과 전공만족도( $r=-.37, p<.001$ )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Table 2. Mean score and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00)

Variables	Item M±SD (Total M±SD)	1	2	3	4
1. Self-esteem	3.14±0.47 (31.42±4.76)	-			
2. Empathy	3.39±0.42 (94.96±11.89)	.08 (.227)	-		
3. Depression	.49±0.35 (9.81±7.01)	-.60 (.001)	.02 (.815)	-	
4. Major satisfaction	4.09±0.79 (73.72±14.33)	.45 (.001)	.51 (.001)	-.37 (.001)	-

M=Mean; SD=Standard deviation

#### 3.3 가설모형 검증

##### 3.3.1 정규성 및 다중공선성 검증

경로분석 전에 변수 간 정규성을 검증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 왜도 및 첨도, 분산팽창요인 및 공차한계를 확인하였다. 변수 간 상관계수는 절대값 기준으로 .02에서 -.60사이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ces of variable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esteem		Empathy		Depression		Major satisfactio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Age (yr)	≤21	141(70.5)	3.16±0.47	.75	3.40±0.43	.66	.48±0.32	-.80	4.10±0.76	.02
	≥22	59(29.5)	3.10±0.48	(.454)	3.36±0.41	(.508)	.52±0.42	(.425)	4.09±0.88	(.985)
Gender	Female	179(89.5)	3.12±0.49	-2.06	3.39±0.43	.12	.50±0.36	.99	4.08±0.82	-.74
	Male	21(10.5)	3.34±0.29	(.041)	3.38±0.36	(.904)	.42±0.28	(.325)	4.22±0.57	(.463)
Religion	Yes	104(52)	3.27±0.41	4.24	3.46±0.40	2.49	.44±0.32	-2.10	4.33±0.66	4.44
	No	96(48)	3.00±0.50	(.001)	3.31±0.44	(.014)	.54±0.38	(.037)	3.85±0.86	(.001)
Last semester grade	≥4.0 <sup>a</sup>	62(31)	3.43±0.41	23.28	3.58±0.38	10.67	.35±0.21	16.77	4.63±0.46	39.90
	3.1-3.9 <sup>b</sup>	98(49)	3.06±0.46	(.001)	3.27±0.46	(.001)	.44±0.23	(.001)	3.88±0.86	(.001)
	≤3.0 <sup>c</sup>	40(20)	2.90±0.41	a)b,c	3.41±0.26	a)c,b	.84±0.52	c)a	3.81±0.63	a)b,c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sup>a</sup>	74(37)	3.22±0.50	8.56	3.41±0.43	.08	.34±0.23	23.66	4.09±0.83	2.09
	Moderate <sup>b</sup>	91(45.5)	3.19±0.42	(.001)	3.38±0.46	(.924)	.44±0.21	(.001)	4.19±0.78	(.129)
	Poor <sup>c</sup>	35(17.5)	2.85±0.46	a)b,c	3.39±0.31		.93±0.49	c)a	3.88±0.74	

왜도의 절대값은 -0.32~1.91로 3미만이며, 첨도의 절대값은 -0.08~5.14로 10미만으로 확인되어 정규분포를 가정함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 오차항의 Durbin-watson 지수는 2에 가까운 1.947로 자기상관이 없고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인자 값은 1.01~1.57로 '10'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0.63~0.98으로 0.10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3.2 가설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수집된 자료 간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chi^2=210.60(.225)$ ,  $\chi^2/df=1.42$ 으로 3이하로 확인되어 적합도 권장 수준을 충족하였으며 절대적합도 지수인 GFI=.96, SRMR=.03, RMSEA=.04, 증분적합지수인 CFI=.98, TLI=.97로 나타나 적합도 권장 수준을 충족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우울( $\beta=-.60, p=.002$ )에 직접효과를 미치고 우울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낸 자아존중감, 공감의 설명력은 43%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는 자아존중감( $\beta=.29, p=.001$ ), 공감( $\beta=.49, p=.001$ ), 우울( $\beta=-.21, p=.03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매개하여 간접효과( $\beta=.12, p=.031$ )가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 공감, 우울의 설명력은 36%로 확인되었다(Table 3,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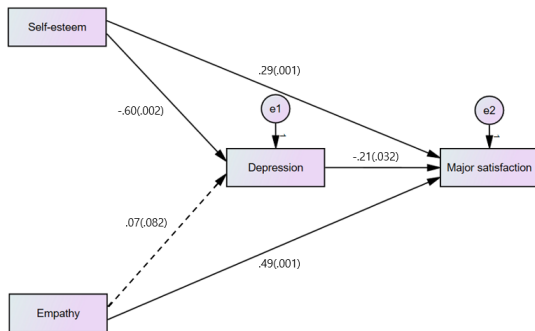


Fig. 1. Pathway model in this study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공감과 우울의 주요 변인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가설모형을 구축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직·간접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모형검증 결과 자아존중감과 공감, 우울은 전공만족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1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14 \pm 0.47$ 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Park과 Jung[24]의 연구에서  $3.10 \pm 0.48$ 점, Hwang과 Park[25]의 연구  $3.16 \pm 0.36$ 점과 유사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내적 안정성과 긍정적 심리 정서를 유지할 수 있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성공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평균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은 5점 만점에  $3.39 \pm 0.42$ 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4학년 간호대학생을 조사한 Kim[26]의 연구  $3.76 \pm 0.33$ 점, 3~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Lee[27]의 연구  $3.48 \pm 0.34$ 점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교과목을 교육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 점수가 낮은 수준인 것은 인문·사회교과목의 관심분야가 아닌 경우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거나, 전공과목과 함께 이수하는 영향으로 학습량이 많아서 공감적 태도와 내적 공감 역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3점 만점에  $.49 \pm 0.35$ 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Park[28]의 연구  $1.02 \pm 0.72$ 점보다 낮고 1~4학년 학생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fin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S.E.	C.R. (p)	SMC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19	4.43(<.001)	.36	.29(.001)	.12(.031)	.42(.001)
	Empathy	.06	9.26(<.001)		.49(.001)	-.01(.075)	.48(.001)
	Depression	.13	-3.08(.002)		-.21(.032)		-.21(.032)
Depression	Self-esteem	.08	-10.61(<.001)	.43	-.60(.002)		-.60(.002)
	Empathy	.03	1.20(.228)		.07(.082)		.07(.082)

을 편의표집한 Go[29]의 연구  $.53 \pm 0.48$ 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저학년의 간호대학생인 경우 임상실습에 나가기 전으로 일상생활 및 학업스트레스가 적어 고학년에 비해 낮은 우울 수준임을 지지하는 결과이다[30]. 2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우울 수준 연구를 찾기 어려워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9 \pm 0.79$ 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31]의 연구  $4.06 \pm 0.57$ 점과 유사한 결과였으나 Lim 등[9]의 연구  $3.28 \pm 0.39$ 점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학 당시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31]와 반대되는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의 환경,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에 양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우울에 대해서는 음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우울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직·간접영향을 미친다는 Kwon 등[32]의 연구와 유사하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전공 선택 및 개인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겨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25].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간의 우울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울을 매개로 하였을 때 전공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간접효과가 나타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심리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은 전공만족도에 양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감은 전공만족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나 우울과는 직접영향이 없었으며 우울을 통해 전공만족도에 간접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실습을 다녀오지 않은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은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33]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공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전공만족도에 음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

울은 전공만족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대생을 대상으로 경로를 검증한 Bahroodi 등[34]의 연구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30], 우울은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감소시키고 집중력, 의사결정력을 낮춰 전공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은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을 갖게 하여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업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35]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 및 상담을 통해 위험군의 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높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춰 간접적으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존중감, 공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출 수 있는 인지행동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개 지역의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경로분석을 위한 가설모형 설정 시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교와 성적은 개인의 가치관 및 자기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감,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영되지 않아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종교와 직전 학기 성적 등 일반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한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 및 환경적인 차이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므로 혼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 우울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주요 변수 간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영향요인을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 자아존중감, 우울 순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통해 전공만족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높이고 우울은 낮추는 인지 행동전략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H. Paik & W. J. Shim. (2013). Tracking and College Major Choices in Academic High Schools in South Korea.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2(4), 389-397. DOI : 10.1007/s40299-012-0035-z.
- [2] S. H. Yoon & S. H. Song. (2020). The mediation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regardi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focused on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4), 591-600. DOI : 10.5392/JKCA.2020.20.04.591.
- [3] J. S. Ju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 10.5977/jkasne.2014.20.2.244.
- [4] S. M. Park, J. L. Lee, & S. Y. Yu. (2023).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endency, and upward social comparison on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9(1), 41-50. DOI : 10.5977/jkasne.2023.29.1.41.
- [5] J. W. Lee, N. Y. Lee, & Y. S. Eo. (2018).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311-320. DOI : 10.5762/KAIS.2018.19.1.311.
- [6] S. H. Kim & M. J. Baek. (2019).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3(3), 409-419. DOI : 10.5932/JKPHN.2019.33.3.409.
- [7] M. Rosenberg. (201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8] S. Bhattacharya, M. Kennedy, C. Miguel, A. Tröger, S. G. Hofmann, & P. Cuijpers. (2023). Effect of psychotherapy for adult depression on self-esteem: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DOI : 10.1016/j.jad.2023.01.047.
- [9] S. Y. Lim, S. Y. Kim, & H. M. Choi. (2015). The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2), 45-51.
- [10] S. Del Canale et al.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 empathy and disease complications: an empirical study of primary care physicians and their diabetic patients in Parma, Italy. *Academic Medicine*, 87(9), 1243-1249. DOI : 10.1097/ACM.0b013e3182628fbf.
- [11] F. Ahrweiler, M. Neumann, H. Goldblatt, E. G. Hahn, & C. Scheffer. (2014). Determinants of physician empathy during medical education: hypothetical conclusions from an exploratory qualitative survey of practicing physicians. *BMC Medical Education*, 14, 1-12. DOI : 10.1186/1472-6920-14-122.
- [12] P. Bas-Sarmiento, M. Fernández-Gutiérrez, M. Baena-Baños, A. Correro-Bermejo, P. S. Soler-Martins, & S. de la Torre-Moyano. (2020). Empathy training in health sciences: A systematic review. *Nurse Education in Practice*, 44, 102739. DOI : 10.1016/j.nepr.2020.102739.
- [13] Y. S. Song. (2018).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4), 406-414. DOI : 10.5977/jkasne.2018.24.4.406.
- [14] W. M. Chernomas & C. Shapiro. (2013).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10(1), 255-266. DOI : 10.1515/ijnes-2012-0032.
- [15] M. Hughes, A. Kenmir, J. Innis, J. O'Connell, & K. Henry. (2020). Exploring the transitional experience of first-yea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9(5), 263-268. DOI : 10.3928/01484834-20200422-05.
- [16] E. H. Hwang & J. H. Kim. (2022). Factors

- affecting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BMC Medical Education*, 22(1), 346.  
DOI : 10.1186/s12909-022-03422-7.
- [17] B. R. Bae. (2011).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9*. Seoul: Chungnam Publishing.
- [18] Y. J. Ha. (200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males and females in their 20s and 30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9] M. H. Davis.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 [20] I. I. Kang et al. (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8(5), 352-358.
- [21]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22] G. G. Jeon, S. J. Choi, & B. J. Yang. (2001).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23] H. S. Ha & K. H. Kim.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24] J. H. Park & S. K. Chu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698-7707.  
DOI : 10.5762/KAIS.2015.16.11.7698.
- [25] Y. H. Hwang & S. J. Park. (2020). The effects of empathy and self concept on problem solv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4), 348-356.  
DOI : 10.5977/jkasne.2020.26.4.348.
- [26] M. S. Kim. (2022).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8(2), 104-111.  
DOI : 10.14370/jewnr.2022.28.2.104.
- [27] Y. S. Lee. (2022). Influence of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2), 865-875.  
DOI : 10.22251/jlcci.2022.22.12.865.
- [28] K. Park. (2022). Effects of Nursing Students' Depression, Fatigu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5), 3287-3300.  
DOI : 10.22143/HSS21.13.5.228.
- [29] H. N. Go. (2022).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2), 485-493. DOI : 10.5762/KAIS.2022.23.12.485.
- [30] Y. Sonmez, M. Akdemir, A. Meydanlioglu, & M. R. Aktekin. (2023). Psychological di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Healthcare*, 11(5), 636.  
DOI : 10.3390/healthcare11050636
- [31] K. E. Lee. (2020).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3), 316-324.  
DOI : 10.5953/JMJH.2020.27.3.316.
- [32] Y. C. Kwon, C. Y. Jeong, & Y. S. Seo. (2018).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97-206.  
DOI : 10.14400/JDC.2018.16.1.197.
- [33] J. H. Kim. (2018).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empathy.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30(3), 229-236.  
DOI : 10.3946/kjme.2018.97.
- [34] P. Bahroodi, R. Zeighami, & A. Sheidaei. (2023). Path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medical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60(4), 1249-1261. DOI : 10.1002/pits.22830.
- [35] S. H. Shin, O. J. Baek, & E. H. Lee. (2023). Effects of Nursing Work Environment, Need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n Turnover Intention in Korea. *Healthcare, 11(12)*, 1698. DOI : 10.3390/healthcare11121698.

박 미 현(Mi-Hyeon Park)

[정회원]



- 201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22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여성
- E-Mail : christine@cnu.ac.kr

박 은 영(Eun-Young Park)

[정회원]



- 2003년 8월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간호학석사)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기본간호
- E-Mail : ey7230@bscu.ac.kr